

##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브릭스(BRICS)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브라질의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각하 내외분과 일행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개월 만에 각하를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두 나라가 이제는 가까운 친구가 된 것입니다.

어제 각하의 정부혁신 세계포럼 기조연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이틀 동안 세 차례나 우리 기업인들을 만난 열정적인 활동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각하의 이런 노력이 브라질 경제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성장 추세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더욱 눈부십니다. 남미대륙의 지역통합뿐만 아니라 아

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미·아랍국가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각하의 지도력과 브라질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지난해 합의한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의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메르꼬수르 무역협정 추진은 물론 자원·에너지·IT·건설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국 자원협력위원회가 처음 열리고 전력·광물 분야의 민간 협력채널도 구축되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지난해 교역량이 44%나 증가할 정도로 실질협력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190여 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오신 각하의 방한이 이를 가속화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남미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이 한층 더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룰라 대통령께서는 ‘모든 일을 철저한 윤리관에 입각해서 실행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각하의 이러한 신념이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자유, 평화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브라질의 발전,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